

2012-2013 빈곤 연구를 위한 보충 자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사역: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

메리 베스 쿠달(Mary Beth Coudal)

연합감리교회의 회장인 해리어트 올슨(Harriett Olson)은 가능하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의 토요일 식사에 참석하고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도 공동체가 커가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이웃들과 풍요로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단 한번 “진짜 음식,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 교회로 온 사람들이었다. 올슨은 그들과의 대화 중에서 특히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의 열기를 해결하는 뉴욕시 지하철 에어컨 시스템을 담당하던 전직 교통 노무자로부터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기도 했다. 그 저녁식사에서 올슨은 이웃들과 대화하고 낯선 이들을 친구 후보로 생각하였으며, 그 공동체가 강고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자신의 연약함까지 드러내는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라고 올슨은 말했다. “그때에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치기 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의 선한 충동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학습은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사람들 자신이 해결책이 되도록 돕는 것이지요. 단순히 뭔가를 고치거나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고쳐야 할 것이 많아 보인다. 빈곤 미국인의 비율은 약 15퍼센트이며, 그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최상위 1퍼센트를 제외하면, 전체 인구의 수입은 그대로거나 하락하였다.

대부분의 불황기에서 그렇듯이 최근의 불경기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은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미국의 23퍼센트의 어린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 속하며, 빈곤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어려운 질문을 던지라

잭 켈러 주니어(Jack A. Keller Jr.)가 편집한 빈곤에 관한 올해의 사명 연구에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회원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빈곤을 완화시킬 행동을 계획한다. 그 질문에는 연합감리교인들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사역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 있다.

그 하나의 길은 내가 사는 도시와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설문, Pew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소수민족과 인종 집단은 히스패닉계와 라틴계 사람들이다. 물론 가난은 이들 집단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우정과 영적 지원 그리고 사회정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려 노력하며, 이때 개인적으로나 단체로써, 자율적인 공동체 형성을 선호하는 때도 있다. 교회 공동체, 스터디 그룹,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동아리의 한 가지 원칙은 “사랑의 공동체(beloved community)”를 만들고 구현하는 것이다. 파멜라 코투르(Pamela D. Couture)가 4장, “미국의 빈곤”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다: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가난”이나 “빈곤”을 연구하다 보면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라고 지칭하고 교회는 “우리”라고 부르면서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한 것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의 스터디 그룹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집단의 개인적인 환경에 관한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즉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동시에 그들이 자신들 속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언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43쪽)

함께 하는 사역은 “그저 관계에 관한 것이며, 사람들과 함께 하며, ‘우리/그들’을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메리 엘렌 크리스(Mary Ellen Kris)는 말한다. 그녀는 빈곤의 시스템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 연합감리교회 에이전시들과 일한다. 그녀가 그 중 시급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시의 주거 부족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비가 법이다.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 되라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가 잘 아는 평화주의자 마틴 루터는 자주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 말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대리자요 상처 입은 세상의 치유자가 되도록 초청한다.”라고 편집자 잭 켈러는 말한다. “자비의 힘인, 다른 사람과의 공감의 변화가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곤의 영향을 함께 공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함께 느끼고 함께 사역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함께 걷고 모두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회의 따돌림을 받는 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예로 인해 정해진 신학적 기초를 받아들인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예를 보여준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태복음 25:35-36).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를 ‘영적 가난’, 즉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열려 있지 못한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이르신 때가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사명 기관들이 빈곤을 다룬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연결된 거의 백 개나 되는 사명 기관들 중 많은 곳이 의복,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가족과 자녀를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많은 곳들은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동의 장을 펼치고, 물질이 가난하거나 영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모으는 일로써, 빈곤이라는 도전을 다루기 위해 공동체를 움직이려 노력한다. 그러한 센터 한 곳이 바로 워싱턴 주 타코마에 있는 타코마 커뮤니티 하우스이다.

타코마 하우스의 이사인 리즈 던바(Liz Dunbar)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지원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타코마 하우스는 “교육과 직업 소개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사람들이 문맹을 벗어나고 ESL 또는 기초 독해와 수학을 제공하는 열쇠로 본다”라고 던바는 말한다.

지난 몇 해 동안 던바는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음을 목격했다. 반면에 사람들의 필요와 전체 빈곤율은 증가했다.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던바는 말한다. 특히 라티노는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일자리에서 “저임금에다 착취를 당한다”. 그녀는 또 말하기를 라티노들은 “적은 임금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더 많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던바는 연간 약 삼천 명을 섬기고 있는 타코마 하우스로는 필요를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센터는 기초 교육이나 직업 훈련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럴 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그 자리를 메꾼다.

2012년 성탄절, 타코마 하우스의 리더들은 선물이 필요한 120 가정을 알아냈다. 하지만 기업 후원자들은 전부 100 가정에게만 선물을 제공할 수 있었다. 던바는 연합감리교의 교회들과 여성교회 동아리에 그 소식을 전했고, 삼일 이내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지역 교회 회원들이 동참하여 카드와 자전거 등의 선물로 3,000달러 이상 제공하였다.

던바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선물에 감격했다. 그녀는 자선에 대한 호소에도 응답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부당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고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도시의 공공 교통수단을 유지 하자는 타코마의 투표 운동을 최근의 한 예로 들었다. 던바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 ‘나는 시내버스는 이용도 안 하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해?’ 하지만 “저소득층 사람들은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갈 때 버스에 의존하고 있다. 그 투표는 부결되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버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회원들이 그 시스템을 바꾸어 사람들에게 평등한 자원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갖춘 유권자가 되면 사람들은 공공 교통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한 안목과 지역적 안목을 동시에 갖추라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회원들은 세계의 자매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여성들인 우리는 정답을 들이대며 참견하려는 충동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리즈 칼빈은 보고하였다. 그녀는 세계 기도의 날(World Day of Prayer)의 국제 변호사이자 전 직원이었다.

칼빈은 그것을 1990년 불어 사용 감리교 여성들의 컨퍼런스가 자이레, 현재 콩고공화국에서 열렸을 때 알았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자이레 여성과 아동의 실태와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근본 원인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 콩고 여성이 미국에서 참가한 우리에게 했던 걱정적인 말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자국 정부 정책,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서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삶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공공 정책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상기시켰다.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빈곤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인을 궁핍하게 하는데 일조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눈을 뜨고, 단체로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지구촌이 당면한 빈곤에 대한 진실을 인식하기 위해 맹점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모두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에는 바로 우리의 고향인 미국 이곳의 빈곤의 상태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른 고장으로 선교 여행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휘방하는 미신을 쫓아내고, 국내와 해외, 경제와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와 정치적인 면의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되지요.”

빈곤에 관한 고정관념을 벗으라

빈곤을 둘러싼 미신을 쫓아내라는 칼빈의 권고는 도전이다. 가난한 사람에 관한 미신 한 가지는 그들이 게으른다는 것이다. ‘리스판스(response)’ 잡지의 2012년 12월호에서 편집장 이베티 모어(Yvette Moore)는 이 미신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폭로한다.

아무도, 정말로 아무도 가난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보험이나 병가를 내지도 못하고, 농사일에서 침대 청소, 아이들 돌보기와 같은 다양한 저임금 직장에서 긴 시간을 명단에 들어 있거나 없거나 일을 합니다. 병든 이들과 노인들도 공사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해체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도 그 일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성과의 최소만을 받죠.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다른 편견들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중독이 병이라는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빈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리더들은 자신의 이웃에 대한 판단과 미신을 벗을 것에 대해 토론하도록 도전 받는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변화의 촉매자가 되어, 탁자에 모든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도록 도전 받는다. 함께 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관계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경험으로 배우죠”라고 크리스가 말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요. 우리의 정신을 열고, 우리의 가슴을 열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편견과 지레 짐작을 없애고 있어요.”

우리는 연대하여 그리고 함께 사역에 참여하면서, 로렌자 안드레이드 스미스(Lorenza Andrade Smith)의 사역을 생각해보자. 그녀는 노숙자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여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한다. “관계형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하는 사역을 하며 빈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2013년에 말씀과 행동을 통해 배우도록 초대되었다. 올슨은 이 간단한 진리를 교회의 토요 공동체 식사에서 배웠다. ‘우리는 함께 빵을 떼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 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큰 질문을 한다.’

더 생각하기 위한 질문들

- 함께하는 관계에 부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자선과 정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해결책을 강요하기 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과 이웃이 해결책을 스스로 찾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 오늘날의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인가요? 가장 경계선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예수님은 강고한 빈곤에 대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숙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 관계형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관된 오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당신이 가난한 자라고 여겨진 때는 언제였나요?
- 우리의 외국 자매들이 우리의 좋은 청지기가 되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 우리가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당신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나요? 혹은 앞으로 만들 것인가요?